

# 운문산반딧불이 탐사 성황

### 무주군, 500여 명 참가·탐사객들 만족도 높아

무주군은 지난 2일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20:30~)를 실시했다. 환경지표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2018 문화관광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9.1.~9.)를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날 탐사에는 5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전에서 왔다는 김 모 씨(45세)는 "해마다 6월과 9월이면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무주를 찾고 있다"라며 "초록이 무성해진 숲 속에서 불빛을 반짝이며 나는 반딧불이를 보는 재미가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온 이 모 씨(38세)는 "애들 보여주려고 신청을 해봤는데 수백여 마리가 흩어져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며 "9월 반딧불축제 때도 꼭 와서 축제랑 같이 신비탐사를 즐겨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오는 9일에도 운문산 반

딧불이 신비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http://www.firefly.or.kr>)를 통해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1만 원으로 서식지로 가서 반딧불이의 반짝임과 생태를 관찰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정재훈 반딧불이 담당 주무관은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중심으로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탐사객들의 만족도도 높다"라며 "남은 일정도 유익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운문산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출현 시기인 5월 말 ~ 6월 초(운문산반딧불이), 8월 말 ~ 9월 초(늦반딧불이 / 반딧불축제 기간 중 실시)에 신비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9월에는



무주군은 지난 2일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실시했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9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반딧불이 서식지와 무주를 예체 문화관 일원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주제관 관람, 반딧불 찾기, 낙화놀이, 샴다리 등이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할 것"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1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무주군 공무원들이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는 이날 "공직자들의 인사가 바로서야 무주군이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먼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 노조위원장과의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후보는 무주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명예퇴직률과 사유별 퇴직분식 및 임용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찾은 행사 동원과 관련 가급적 행사진행을 위한 필요인원외에는 참여저조로 발생된 공백을 공무원으로 충당하는 사례를 지양하는 한편 이를 내부 규정으로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황 후보는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을 전면 검토하고 현 직렬별 인원과 부적절한 배치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국유림관리소

#### 지역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산림병해충의 효율적인 예방과 방제를 위하여 8월 31일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대책본부 운영기간 내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연막방제와 함께 농림지 동시발생(돌발·외래·일반병해충 등) 공동방제까지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와 함께 '공동방제의 날' 운영계획에 따라 협업방제를 추진하게 된다.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에 따라 산림업지 및 농경지역 등에 그을음병과 흡충피해를 동시에 주고 있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의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방제를 계기로 알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외에도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의 종류가 많고,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적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방제 대응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호응

지난달 31일 장수읍 로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가 '희망콘서트'라는 이름의 정책 토크로



매일 밤 장수군의 각 읍·면을 찾아가 간다.

31일 밤 8시, 계남면사무소에서 '희망콘서트'의 포문을 연 김창수 장수군수 후보는 청년, 주부, 노인들 100여 명과 함께 정책과 마을 현안, 사회적 질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계남에서 열린 희망콘서트에서 '농

번기 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과 '농산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이 토로되고, 그에 대해 김창수 후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대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무런 대본이나 자료없이 1시간 남짓 계속된 토크에서는 정책 외 '애내가 더 소중한가, 장수군이 더 소중한가'라는 식의 재미있는 질문도 나오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희망콘서트'는 김창수 후보가 예비선거운동 기간동안 해온 '소통과 경청투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6월 13일 투표일 전까지 매일 밤 8시에 각 읍·면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2018 호남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

### 장수군, 특산물·축제 등 여행정보 제공 큰 호응

장수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8 호남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장수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했다.

2018 호남 국제관광 박람회는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함께 국내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로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공동 후원 및 참가해 2018 전라도 방

문의 해' 홍보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전라도의 다양하고 즐거운 여행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군은 이번 행사에서 장수 농특산물(사과즙, 오미자청) 시식행사, SNS 이벤트, 도깨비캐릭터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으며, 대표 관광지인 논개사당, 뜬봉샘 생태관광지, 대곡관광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등의 관광코스를 전북 투어패스와 연계하여 소개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한 2018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2018.9.14.~9.16.)' 홍보에도 전념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수군의 관광자원과 축제, 특산물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장수군을 찾은 뿐 만 아니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진행되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농기센터, 갈색날개매미충 집중방제기간 추진... 6월8일까지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해충으로 진안군에서는 지난 2014년에 처음 출현했다.

연 1회 발생하여 어린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하고 5월 중순부터 6월 초

경 부화하여 성장한 약충과 성충이 구멍을 나뭇가지에 꽂아 흡즙해 나무의 수액을 저하시키며 약충의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아직까지 밝혀진 전적도 없고 소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수와 수목에서 번식할 수 있어 과수농가 등에 피해도가 심각하다.

올해 진안군은 5월 11일 백운면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유충이 처음 발견됐다. 이에 군은 읍면마다 지역 차이를 반영해 6월초를 방제 적기로 판단하고 5월초 갈색날개매미충 친환경제제 280개, 일반제제(오신) 2,070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했다.

또한 산림부서와 공동으로 과수원과 인근 산지를 중심으로 6월 1일부터 8일까지를 집중 방제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 "여성 힐링 문화 시설 조성"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지난 1일 여성복지와 '젊은장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미,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여성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젊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생활의 여유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제 젊은 여성들이 장수에서 생활을 답답하게 느끼지 않도록 문화적 감성을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전용시설은 오는 8월 개원하는 여성청소년센터로 이전하는

한누리전당 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게 된다.

이 후보는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큰 여성들이 건강생활, 스트레스 해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여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가족휴게농과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화관, 수영장이 함께 있는 여성힐링 공간에서는 요가 등 생활체육은 물론 음악, 심자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키즈카페를 만들어 엄마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마을해설 시연' 프로그램 진행

진안군은 최근 마을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해설 시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안군 일출형 농촌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만들기 학습을 위해 진안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마을만들기 활동과 마을의 생태, 역사문화 등을 소개하기 위해 7개 마을이 참여한다.

지난달 31일 1차 교육에는 상가막마을과 신덕마을, 원강정마을에서 진행됐으며, 오는 7월 2차 교육에는 원연정마을과 봉곡마을, 하초마을 황금권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마을별로 1시간 이내의 마을해설을 시연하고 타 마을의 마을해설사와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전문가, 담당자 등이 함께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눈다. 또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가와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을의 해설을 들어보는 주민들은 해설사들이 찾아 내지 못한 마을의 자원들을 꼽는가 하면 무심코 살아왔던 마을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마을해설사들은 7월부터 마을탐방객들을 맞이하여 해당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과 농촌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는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mailto: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지역 취득  
수상 인형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